

Business Focus

COP26 리뷰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November 2021



Contents

COP26 개요	2
COP26 목표	3
COP26 주요 논의사항	4
COP26 대표 결정문	8
COP26 성과와 한계	9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469

E: doobeenyim@kr.kpmg.com

김나래

수석연구원

T: +82 2 2112 7095

E: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T: +82 2 2112 3918

E: yeom@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항목	내용
기간/장소	- 2021년 10월 31일 ~ 11월 13일(협상 난항으로 하루 연장) - 영국 글래스고(Glasgow)
참가규모	- 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2만 여명
주요의제	- 국제 탄소시장 지침 채택으로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 투명성 체계 보고표 및 양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통 기간 등 파리협정 이행규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논의
회의구성	- 당사국 총회(10.31~11.12): 부속기구 회의 결과물 채택 - 부속기구 회의(10.31~11.6): 국제 탄소시장, 투명성 체계, NDC 공통기간 및 기타 의제(감축, 적응, 자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 실무협상 - 정상급 회의(11.1~11.2): 당사국 정상 발언 - 고위급 회의(11.9~11.10): 당사국 수석대표 국가발언



Source: UNFCCC 홈페이지, 환경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로 감축, 적응, 자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 포함

기후변화협약 주요 진행경과



Source: 언론보도 종합

Note: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당사국총회를 의미하며,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다음해인 '95년 독일에서 COP1이 개최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음. 단, 2020년은 코로나19로 연기됨

COP26의 네 가지 목표: ① Mitigation, ② Adaptation, ③ Finance, ④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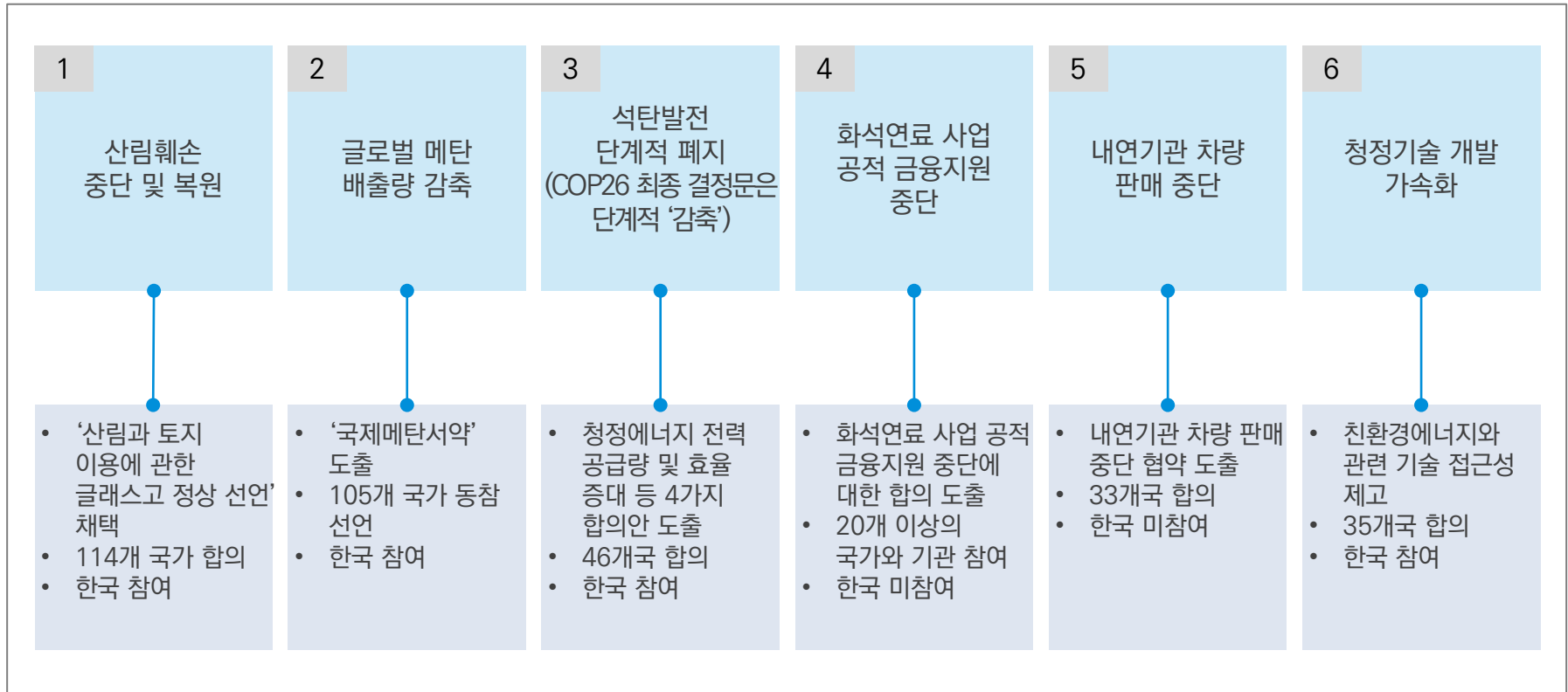
COP26의 4대 목표 및 세부 내용

#	목표	세부 내용
1	완화(Mitigation) 글로벌 넷제로 달성/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하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과 일치하는 강력한 2030년 배출감소 목표를 제시 탈석탄 가속화 삼림 벌채 줄이기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가속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장려
2	적응(Adaptation) 지역 사회와 자연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홍수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탄력적인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과 더 많은 재정을 마련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직면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daptation Communication'을 작성해야 함
3	금융(Finance) 금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 조성 약속을 이행해야 함 글로벌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수조 달러의 민간 및 공공 부분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
4	협력(Collaboration) 전 세계 각국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규칙(Rulebook) 최종 완성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가속화

Source: COP26 홈페이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기후변화에서 적응(Adaptation)이란 기후 상태(climate condition)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 생태계 또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

COP26 기간 중 주요 논의 사항과 합의 동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산림훼손 중단 및 복원과 글로벌 메탄 배출량 감축

	1 산림훼손 중단 및 복원	2 글로벌 메탄 배출량 감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개 국가 합의 도출 • 한국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개 국가 동참 선언 • 한국 참여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산림훼손 행위(불법 벌채) 중단 및 훼손된 산림 복원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 국가들의 산림 규모는 전 세계 산림의 85% - 산림 벌채에 기반한 농산물 무역 금지 계획 • 산림 보존 토지 소유주에게 탄소배출권 무상 제공 • 금융 기관은 산림 벌채 리스크가 있는 투자 자산에 대해 2025년까지 투자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탄 배출량 감축이 204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약 0.2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메탄 배출 규제 확대 중 • 한국 정부는 국내 농축산, 폐기물,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추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보유 또는 조림사업 기업은 탄소배출권 수익도 기대 가능 • 원재료 공급망을 관리하는 기업 경쟁력 부각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믹스 변화 예상 • 폐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산업 대두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폐자원에서 나오는 메탄을 에너지화 하기 위한 플랜트 산업 등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은 서명을 거부 •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선진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양 측의 입장 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 존재하여 일부 국가들은 서약에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미참여 국가: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화석연료 사업 공적 금융지원 중단

	3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4 화석연료 사업 공적 금융지원 중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개 국가 합의 도출 • 한국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개 이상 국가 합의 • 한국 미참여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4가지 합의안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량 및 효율 증대 - 석탄 발전 선진국 2030년 또는 개발도상국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 - 국내 및 해외의 신규 석탄발전소 설립 중단 - 석탄에서 탄소 미배출 에너지원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화석연료 사업에 2022년 말까지 공적 금융지원 중단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고루 참여 - 선진국: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 - 개발도상국: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도입 수요 증가 • 에너지 부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비화석 에너지 설비 투자 및 공급망 구축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했던 국가, 기관들이 금융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화석연료 투자가 실질적으로 감소 • 성공적으로 이행 시 매년 150억 달러 규모 화석연료 투자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것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석탄 생산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들 국가는 세계 석탄 소비의 75% 차지 • 석유, 가스 등 다른 화석연료는 포함되지 않음 •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결정문에는 '단계적 감축'으로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에서 화석연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연간 109억 달러), 한국(연간 106억 달러), 중국(연간 76억 달러) 등이 참여하지 않음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과 청정기술 개발 가속화

	5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6 청정기술 개발 가속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개 국가 합의 • 한국 미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개 국가 합의 • 한국 참여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시장은 2035년까지 중단 - 주요 시장은 유럽, 북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정의하진 않음 - 나머지 지역은 2040년까지 판매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친환경에너지와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 교통, 철강, 수소, 농업의 5가지 부문에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영국과 인도: 초국가적 전력망 구축 사업도 시작 • 친환경 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에너지 기폭제 프로그램: 30억 달러 조성하여 에너지 저장 및 친환경 항공연료 시장 투자 계획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기업의 신기술 개발 가속화 • 각국 정부가 전기차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기술 보급이 관련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 • 탄소 배출 절감분 아니라 2,000만 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모두 참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26에서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새로운 예산 지원을 서약하였으나 투자금액이 낮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입장 차이 존재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

글래스고 기후합의 주요 내용

COP26 대표 결정문은 국가 간 개별합의와 달리 196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구조. 협상 난항으로 마감시한을 하루 넘겨 11월 13일 극적 타결

-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년(2022년) 재점검
 - 2030년 '1.5°C' 목표에 맞게 NDC를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
- 선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 두배로 확대
 - 선진국은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적응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두 배 확대
- 파리협정 6조인 국제 탄소시장 지침 채택
 - 탄소배출권 시장의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범과 탄소배출 감축분이 거래 국가 양쪽에 모두 반영되는 '이중계상'을 막는 방안 마련
- 격년으로 투명성보고서 작성
 - 2024년부터 격년으로 투명성보고서를 작성·제출. 검토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도 합의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에 대한 코멘트: 실망감 우세

-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
“실망을 이해하지만 합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태로운 승리다. 1.5도가 살아있지만 맥박이 약하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우리는 여전히 기후 재앙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긴 했으나 크나큰 모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
“순하고 약해 빠졌다. 기온 상승 1.5도 제한 목표치만 간신히 살아남았다.”
-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가
“요약하면, 어쩌구 저쩌구(Blah, blah, blah).”
“전례 없는 연간 배출량 감축이 없다면 기후 위기 대응은 실패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일부 진전 있었으나 국가별 입장 차 재확인한 COP26

파리협정 세부시행규칙 완성,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

- COP 최초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다는 점과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로 파리협정의 세부 시행규칙을 완성한 것이 COP26의 성과로 꼽히지만, 국가간 쟁점 해결은 여전히 미흡
- 탄소중립 시기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50년을 탄소중립을 목표를 제시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2060년, 인도는 2070년 제시
- 개도국 지원 - 개도국은 COP15에서 선진국들이 약속한 개도국 지원 기금 연 1,000억 달러를 이행하라고 압박. 선진국이 기금 규모 확대 의사를 밝혔지만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메탄가스 감축 - 2030년까지 메탄 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인다고 명시한 메탄 협약에 주요 배출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는 서명하지 않음
- 석탄발전 폐지 - 주요 석탄 소비 40여 개 국가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하기로 합의. 그러나 세계 3대 석탄 사용국인 중국, 인도, 미국은 미서명(단계적 '감축'에 합의)
-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한다는 협약에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 중국, 독일이 모두 빠져 있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결국 마감시한 1년 더 연장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다'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채 11월 13일 폐막
- 국제기후변화 대응 기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s Action Tracker)'은 현재까지 발표된 NDC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2.4°C 오른다고 지적
- COP26 성명서에서는 세계 각국이 NDC를 다시 점검해 2022년 말까지 NDC 목표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김

[주요 국가별 NDC]

국가	2030년 목표	탄소중립 시기
EU	1990년 대비 55% 감축	2050년
미국	2005년 대비 50% 감축	2050년
한국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일본	2013년 대비 46% 감축	2050년
중국	탄소배출 정점 도달	2060년
인도	탄소집약도 45% 이하	2070년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ESG 비즈니스 그룹

Consulting Service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gnamkim@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	---	--	---

Deal Advisory

김진만 부대표 T: 02-2112-0786 E: jinmankim@kr.kpmg.com	김진원 전무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이진연 상무 T: 02-2112-7435 E: jinyeunlee@kr.kpmg.com	신수련 이사 T: 02-2112-7528 E: ssheen@kr.kpmg.com
---	--	---	---

Audit

김진귀 전무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김시우 상무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정재욱 상무 T: 02-2112-7909 E: jjoung@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	---	---	---

kpmg.com/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